

# 비육우 사료산업 전망



박 응 렬 박사  
㈜ 삼양사 축우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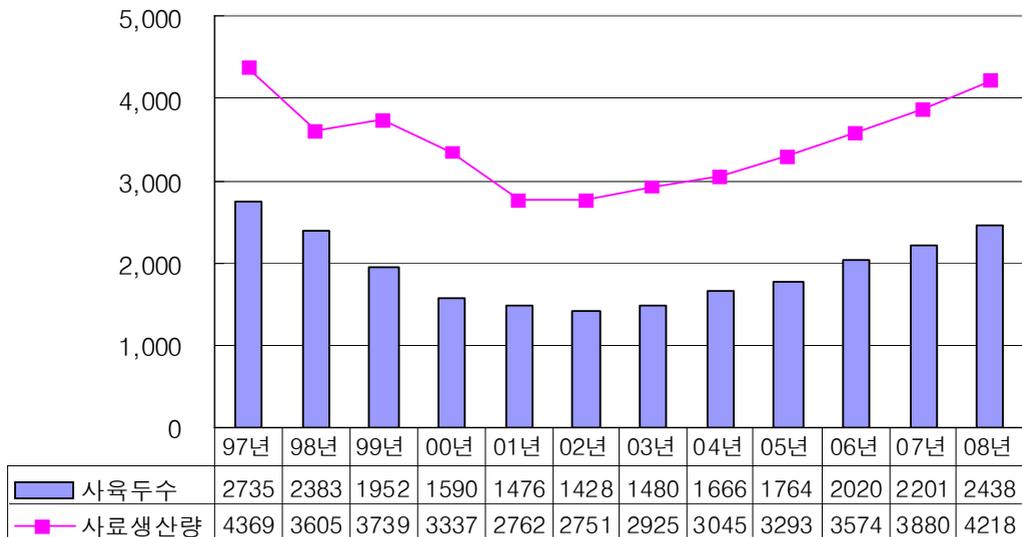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는 IMF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비육우 산업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양축가와 업계 모두 상당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2001년 140만두에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오던 비육우 사육두수가 2008년 12월 현재 244만두로 최고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동반하여 비육우사료의 생산량도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최근3년간은 매년 9%의 가파른 증가추세의 호황기를 보여왔다<그림 1>.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근거로 미산쇠고기 수입시 우리나라 적정 비육우 사육두수인 180만두를 훨씬 초과한 244만두를 보이고 있으며, 미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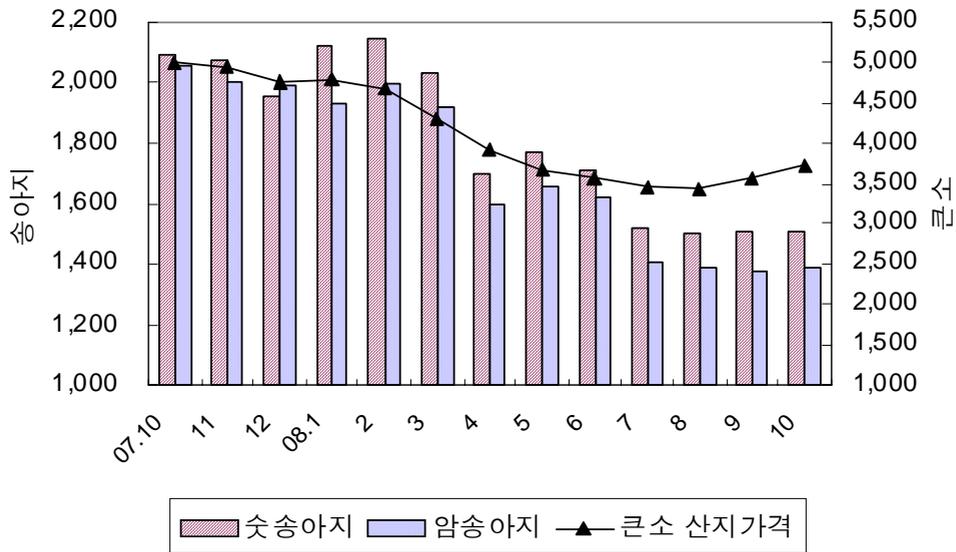
<그림 1> 비육우의 사육두수와 비육우사료 생산량 추이

(단위: 천두, 천톤)



〈그림 2〉 한육우 및 송아지 산지가격 변화

(단위: 천원, 큰소 500kg기준)



한우의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하였다<그림 2>.

한때 미국 광우병 발생의 영향으로 70%를 육박하던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이 2008년은 37%로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가 급격히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표 1>.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한 국내의 비육우 시황 속에 올해 송아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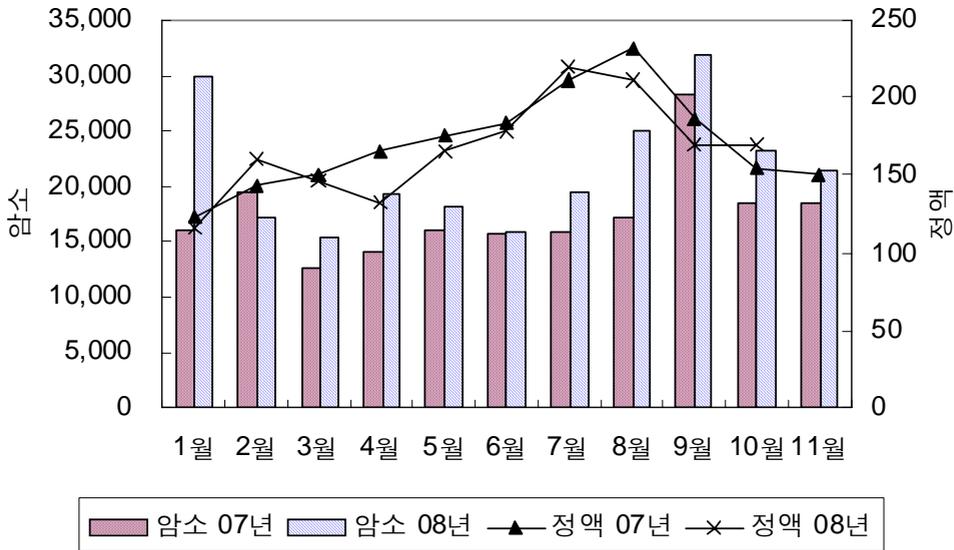
〈표 1〉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구분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	총수입량	미국산점유율(%)
'08년5월	0	12,074	4,039	435	16,548	0
6월	101	8,596	2,354	166	11,217	1
7월	4,401	10,538	3,314	217	18,470	14
8월	3,218	7,761	2,027	205	13,211	14
9월	12,266	8,105	1,208	235	21,814	39
10월	16,773	10,069	1,123	338	28,134	42
소계	36,759	104,930	33,315	2,641	177,476	

※ 2008년 국내 쇠고기 자급율 37% 예상됨 (37만톤 소비기준)

〈그림 3〉 암소도축율, 인공수정 실적변화

(단위: 암소 만두, 정액 천 스트로우)



림 2>, 암소 도축율의 증가와 함께 인공수정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을 보면 작년 대비 암소 도축율은 23%증가하였고, 한우 정액판매량은 3.2% 감소하였다. 본 Data를 종합하면 2009년부터는 국내비육우 사육두수와 함께 비육우 사료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미국내 광우병의 재발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향후 2년내에비육우 사육두수는 200만두 이하 수준으로 감소 할 것이다. 그 근거로 1996년 284만두에서 238만두(1998년)로 46만두 감소하는 기간은 2년이었고, 238만두에서 159만두로 79만두가 감소하는데 또한 2년이 소요되었다. 사육두수 과다 및 경기 침체로 일단 비육우의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급격히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1997

년 전후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미산 쇠고기의 수입증가 및 국내비육우의 사육두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육우 양축가들의 상당한 구조조정과 함께 고급육 생산 위주의 경쟁력 있는 양축가와 단체위주로 가구당 사육두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속에서 국내 비육우 사육두수는 150만두 이상 수준에서 안정을 찾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그 근거로 각국간의 FTA타결로 인한 무역장벽 완화와 함께 국민의 식습관이 서구화로 변화 할 것이다. 이로 인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11.5kg 예측), 쇠고기의 원산지 표기의 정착으로 인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한우 고급육 시장은 유지될 것이며,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시의 자급

율인 30%를 조금 밑도는 25% 이상의 쇠고기 자급률은 유지되리라 예상된다. 25%이상의 국내 쇠고기 자급율을 유지 할 경우 국내에서는 150만두 이상의 비육우가 필요하며, 비육우 배합사료 생산량은 올해 대비 29% 감소한 300만톤 정도가 되리라 예측된다 <표 3>.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국내 비육우 사료 사업은 어떻게 변화 할까? 사료의 생산량 감소와 함께 국내 사료시장은 첫째로 "소비자의 식품 안정성 요구 증가", 둘째로 "고품질의 기능성 축산물 요구증대", 마지막으로 "비육우 양축가들의 대형화 및 비육우의 브랜드화로 인한 OEM·ODM사료가 증가"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사료회사 주도의 비육우사료 생산 및 사양관리가 이루어졌지만, 향후에는 양축가 단체 및 소비자 중심의 사료생산관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그 예로 소비자들로부터 "사료공장 및 농장의 HACCP 시스템 강화", "BSE에서 안전한 쇠고기

생산관리", "Non-GMO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강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와 식문화 및 사료원료와 생산관리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예를 들면, 이미 다수의 광우병소가 발견되어, 우리보다 광우병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다. 그 결과 도축한 국내 소들의 광우병 전수검사는 물론이고, 사료공장에서도 동물성사료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철저한 Line분리 혹은 별도의 축우전문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공장의 운영효율을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이를 보전하고자 각 사료회사 소속 사료공장을 별도 법인화하여, 경쟁력 있는 각 축종 전문 사료공장에서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공장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생제와 동물성원료로부터 안전한 사료의 생산은 물론, 원료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운반비

〈표3〉 국내산 비육우 사육두수 예측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15(A)년	15(B)년
비육우사육두수(만두)	148	167	182	194	200	150
소 산지가격(천원/500kg)	3,907	3,547	3,876	3,896	?	?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천톤)	142	145	152	170	175	131
쇠고기 총수입량(천톤)	294	133	143	179	367	411
쇠고기 총 소비량(천톤)	390	328	317	349	542	542
소고기 자급율(%)	36	44	48	49	32	24
1인당 소비량(kg)	8.1	6.8	6.7	7.4	11.5	11.5

※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예측은 농촌경제연구원 Data를 참조 함.

도 절감 할 수 있어, 이러한 생산 시스템은 이미 일본의 사료업계에서 정착되어 있다.

사료산업은 국민의 식량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간 무역 개방화와 함께 수입축산물의 증가로 국내 축산물과 사료의 생산량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연구개발능력" 및 "영업/

마케팅능력"과 우수한 생산시설을 보유한 회사만이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국내에서는 향후 사료의 기술 판매를 주도하는 종합 사료회사와, OEM의 특정 축종의 사료만 생산하는 생산위주의 사료회사로 양분화되고, 내년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체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낙농 산업 전망



김 무 진

CJ제일제당 축우PM

### ◆ 2008년 축산산업을 돌아보며...

2008년은 지난 90년대 말 IMF라는 국가 경제위기를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오르게하는 한해였다. 특히 낙농산업에 있어서는 년초부터 연말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2007년에 이어 년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해상운임비 인상 그리고 국제사료작물의 작황부진 등의 이유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사료원료를 거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축산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고 곧바로 사료가격인상으로 연결되어 축산농가들은 지금까지 생산비 가중이라는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사업을 근근히 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부터 국제 곡물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고, 해상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 국제 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1톤의 가격은 6월 420달러에서 9월엔 333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10월은 240달러로 내렸다. 같은 기간 동안 소맥과 대두박도 50%가량 하락한 상태다. 여기에서 중국의 베이징을

림픽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선박수요 감소 등으로 곡물수송에 따른 해상운임도 크게 인하됐다. 국제 곡물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해상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자 축산농가들은 사료가격인하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는 상태이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산너머 산이라고 고곡물 가격의 파고를 넘어서고 보니 환율급등이라는 더 큰 파도가 우리 축산 산업 앞에 또 버티고 있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료업체들에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내 사료업체가 국제시장에서 곡물 1달러 어치를 구입하고 지불해야 하는 원화는 2007년말말에는 938원 정도였으나 올 8월 1,090원에 이어 최근에는 1,50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환율불안 상태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환율도 1,8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우려의 예상도 있어 국내배합 사료업체들은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져도 사료가격 인하는 커녕

환율변동에 따른 엄청난 손실에 당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2008년은 국내에 모든 축산연관 산업이 위축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다.

## ◆ 국내 낙농산업은...

국내 낙농산업도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축산산업 환경의 태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조사료까지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 낙농급여의 형태를 감안한다면 낙농농가의 어려움은 더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2002년 원유생산제한제(쿼터제) 시행이후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사육두수와 농가수에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더욱더 낙농산업의 위축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하지만 2008년은 낙농산업에 있어서 (-)의 현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초부터 원유가 인상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지난 3월 6일 원유가 인상을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공식 요구한 것을 시

작으로 지루하고 치열한 유대협상이 시작되었고,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 간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마침내 7월 18일 기본원유가 20.54% (120원) 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되어 8월16일부터 적용되었다.

기본 원유가 인상이라는 (+)의 효과가 수차례의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생산비증가라는 어려움속에서도 국내 낙농농가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원유가 인상 이후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 문제, 유업체별 쿼터물량 삭감의 현실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높은 사료가격과 국내 낙농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원유생산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원유 생산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월 생산량이 16만 톤대로 하락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중 원유 생산량은 16만7천955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생산량이 16만 톤대로 하락한 것은 98

### 낙농가수, 사육두수 현황

(단위: 천두, 호,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총마리수	519	497	479	464	453	445
전년대비	-4.6	-4.1	-3.7	-3.1	-2.4	-1.8
낙농가수	10,514	9,612	8,923	8,260	7,657	7,219
전년대비	-10.3	-8.6	-7.2	-7.4	-7.3	-5.7
호당두수	49.3	51.7	53.7	56.2	59.2	61.7

자료: 가축통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년 2월 이후 10년 7개월만이다

유대인상 이후 다소 인상된 유대 여파로 다소 원유생산량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낙농농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비용절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 ◆ 2009년 낙농산업 전망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지만 낙농산업도 2009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의 초점은 사료가격 인하 부분 일 것이다. 하지만 2009년도는 2008년도처럼 곡물의 수요량의 증가가 공급량의 증가를 초과하거나, 해상운임과 같은 기타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환율의 불확실성에 의해 사료가격이 좌우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곡물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기 확보했던 고가의 곡물 소진 이후에는 사료가격인하 요인이 있지만, 이것도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다.

환율에 대한 예측은 2009년도에 들어 전반적인 하락세로 년평균 1,100원대로 보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2009년 상반기중에는 환율의 하락세는 기대하기 힘들고, 하반기나 2009년말에나 가야 하락세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데도 있다.

이것은 비단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입 건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입건초도 현재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지만 국내 수입공급업체들도 환율 때문에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환율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곡가사태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료의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로 인해 곡물가급등세 및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파장을 고스란히 국내 축산업계가 떠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우리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현상들은 농가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국내 축산 산업구조의 문제 등은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숙제인 것은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축산 산업의 생존을 위해 축산농가와 그와 연관된 사업의 주체들이 다가올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 ◆ 맺음말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생산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낙농사업의 존폐는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8년 뜨거운 여름, 국내 낙농가들의 하나된 모습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유대인상이라는 큰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원유가격 120원인상의 의미는 착유우 30두 규모의 목장에서 연간 4천만원이상의 추가 수입을 뜻한다. (2007년 검정농가 평균산유량 기준 산출)

2008년 하반기 높은 사료값으로 인해 농장에서 벌어지는 사료줄여먹이기, 그로 인한 유생산성저하 및 BCS 저하 초래등의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현상들을 볼 때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웠다.

목장의 생산성을 위해서 사료회사도 사용

원료에 대한 정확한 원료평가 기술로 실제 낙농목장에서 과부족이 없이 사료내 영양소 이용률 최대화하고, 보다 안정된 품질의 제품과 목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목장은 단순히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의 마인드로 젖소 한 마리 한 마리 개체 관리를 통해 최대한의유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호간의 노력만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어려운 축산 현실을 넘어서, 낙농사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목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때다. ☞

# 기회와 준비의 한해 2009년 양돈산업 전망



민 승 기

전하제일사료 양돈PM 부장

2008년 올 한해는 실로 숨가쁘게 상황이 급변하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한 해로 아마도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듯 하다. 특히 4/4분기 미국발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파장이 전 세계 주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타격을 주면서, 전세계 주식 시세의 폭등과 폭락, 환율의 급변, 수출입 감소와 세계 굴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및 구제 금융 지원 등 세계 경제 뉴스가 연일 톱 뉴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양돈산업도 이런 국제경제 흐름의 중심에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혹독했었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한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3월까지 지속된 저돈가와 곡물시세와 선임료의 급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양돈농장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2007년 9월 10,200호였던 양돈농가수가 불과 6개월 후인 2008년 3월에 7,900호로 급감하는 호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3월말 AI의 발생과 수도권 확산 그리고 미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과 수입 강행으로 발생된 촛불 집회, 여기에 칠레산 수

입돈육의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인해 먹거리 특히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돈육 소비 의욕을 부추겼고 이는 사상 최고의 돈가 행진이라는 호재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양돈농장의 낮은 생산성과 수 차례에 걸쳐 시행된 사료가격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높아 서슬 퍼런 구조조정의 칼날은 잠시 피했지만 체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는 아직도 시급한 상황이다.

2009년 양돈산업을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세계적인 금융불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고 또 우리나라도 상당기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이나 정도를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태인 한-미 FTA 협정과 진행중인 EU와의 FTA 협정 타결 여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미산 쇠고기의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돈육 소비량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한 외식 감소와 축산물 소비량 감소는 분명 양돈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진행된 번식돈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하여 2008

년 4/4분기부터 도축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산 공급량 부족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환율로 수입 돈육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금부담으로 인한 돈육 수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올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돈육 원산지 표지제가 국내산과 수입돈육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하와 생산비 감소로 양돈산업은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의 연착륙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본고에서는 2008년 양돈 산업을 마무리하고 성찰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보고자 한다. 불확실한 시기 내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09년은 분명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새로운 전환기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와 준비의 한 해가 되리라 판단되고 또 생산성 개선과 비용절감을 위한 고된 노력이 있어야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쉽지 않지만 미래 양돈 산업 밑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주관적 관점에서 전망해 본다.

## 1. 양돈 산업 현황 및 전망

### 1) 사육두수 및 사육 호수 동향 및 예측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계속된 고돈가로 인해 감소추세 있던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9월 966만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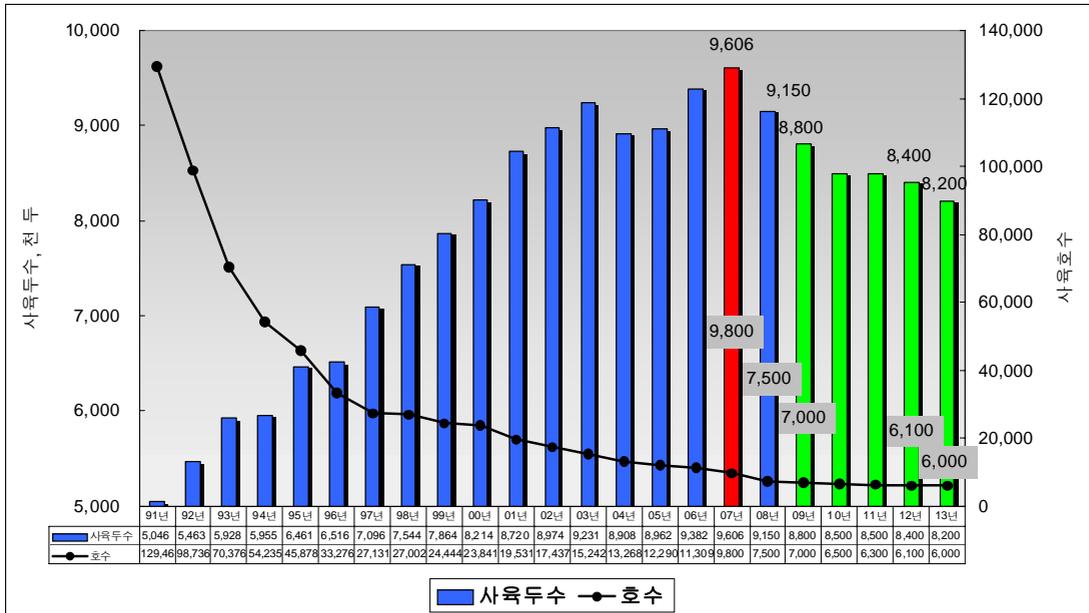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1/4분기까지 6개월 여간 계속된 저돈가로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8년 3월 898만두로 떨어졌고 사육호수도 불과 3개월 만에 2,000여 호가 감소한 7,900호에 이르렀다.

급격한 구조조정이 예상되었던 2008년 2/4분기 돈가가 급등하면서 전체 사육두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유지하고 있으나 번식돈의 사육두수는 여전히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꾸준히 진행된 번식돈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해 2009년 사육두수는 약 880만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호수 또한 소폭 감소하겠지만 2009년도 2008년과 마찬가지로 고돈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급격한 사육호수의 감소는 없고 서서히 감소하여 약 7,000호~7,200호 정도가 예상되며호당 사육두수는 약 1,250두/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참조).

장기적으로 양돈산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지 않고 단기간의 고돈가로 인해 사육두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돈육 소비량 증가의 한계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돈육의 증가로 사육두수는 매년 소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사육두수 820만두, 사육호수 6,000호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사육두수 현황 및 전망



## 2) 돈육수급 동향 및 전망

: 2008년 고돈가의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급 불균형이다. 2008년 연간 도축두수는 약 1,360만두가 예상되는데 이는 2007년과 유사하다. 그러나 1/4분기 저돈가와 4/4분기 고환율로 인해 돈육수입이 위축되어 2008년 돈육 수입량은 2007년 돈육 수입량 248,000톤 대비 약 14%가 감소한 212,00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입돈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2008년 고돈가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수급 불균형 현상은 200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정한 경제와 경기 침체 그리고 미산 쇠고기의 소비 증가로 2009년 1인당 돈육 소비량은 18.9kg으로 2008년 예상치 19.3kg 대비 0.4kg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계속된 번식돈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해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실제 2009년에는 도축두수가 감소하여 국내산 돈육 공급량이 약 3~5% 감소하여 2009년 연간 도축두수는 1,300만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 3) 돈육(지육) 시세

: 심각한 수급 불균형(돈육 수입량 부족)으로 2008년은 유래 없는 고돈가가 유지되었다. 특히 국내산 돈육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돈육 소비 비수기인 4/4분기에도 10월 한달 지육 kg 당 가격이 4,000원 미만으로 형성되었지만 11월 다시 급등하여 4,500원이 유지되고 있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은 연초부터 국내산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고돈가가 예상된다. 특히 12월말부터

〈표 1〉 돈육 수급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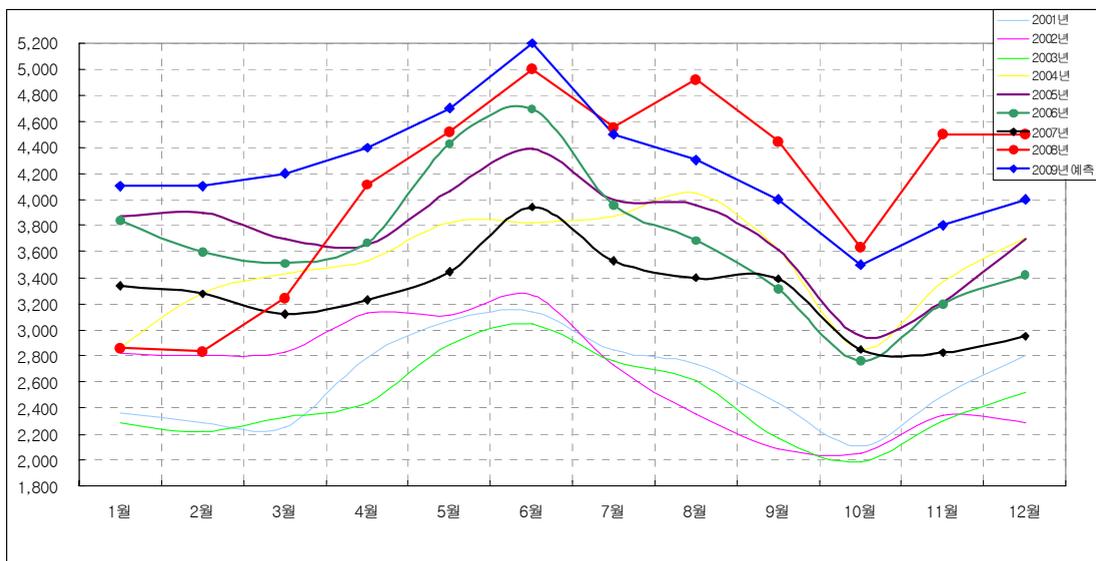
구분	공급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자급율(%)	1인당 소비량, kg
	생산량	수입량	계	소비량	수출량		
2003년	782.6	60.8	901.1	834.1	27.1	93.8	17.40
2004년	748.6	108.8	897.2	856.7	15.8	87.4	17.90
2005년	701.5	173.6	899.8	838.5	14.7	83.7	17.80
2006년	677.4	210.6	934.6	874.7	12.2	77.4	18.10
2007년	702.5	229.0	979.2	927.2	12.0	75.8	19.20
2008년 추정	699.0	220.0	959.0	932.0	12.0	75.0	19.30
2009년 예측	681.5	260.0	956.5	911.5	15.0	74.8	18.90
2013년 예측	651.3	330.0	1,011.3	966.3	15.0	67.4	20.00

시행되는 돈육 원산지 표시제가 국내산 수요를 부추긴다면 기대 이상의 고돈가가 형성될 수도 있다. 2008년 연평균 돈가는 약 4,100원/지육kg으로 예상되는데 2009년은 이보다 높은 약 4,300원/지육kg이 예상된다 (표 2 참조)

우리나라 양돈업의 생산성 현주소는 모든

당 연간 이유두수(PSY) 17.3두(모든 회전을 1.93, 복당 산자수 10.1두, 복당 이유두수 8.96두, 2007년 생산성 통계자료 기준)이고, 이후 폐사율이 25~30%,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MSY) 13.5두 내외로 양돈 선진국들의 국가 평균 MSY 20~22두와 비교하면 경쟁력을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숫자임에 틀

〈표 2〉 돼지 월별 지육 가격 현황 및 전망, 단위 원/지육kg, 전국평균가격



림없다. 만약 2008년 올 한 해, 고곡물가, 고비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작년 이맘때 예상했던 것처럼 저돈가가 유지되었더라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련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강타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의 고돈가, 또 2009년의 호황 예상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신께서 부여하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예

상되는 호황에 안주해서도 안되고 고민하고 분석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나, 하나씩 실행에 옮겨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양돈농가들이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열정과 땀을 쏟는 2009년을 기대해 본다. ☞

# 양계산업 전망



성 은 일

서부배합사료(주) 연구개발팀  
대리

## ■ 머릿글

2009(己丑)년의 양계산업을 전망한다는 것은 지난해(戊子) 보다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2008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어 5% 내외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진한 경제실적과 대외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동요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소비둔화가 미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09년을 전망하는 자료들은 2009년의 대외여건은 2008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2009년 양계산업을 전망해 봄으로써 양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육계는 상반기 1,503원/kg과 하반기 1,893원/kg, 계란(특란)은 서울기준으로 상반기 1,270원/10개과 1,376원/10개로 조사

되었다.

이처럼 2008년의 가금생산물의 가격은 2007년에 비해 높게 형성된 것은 생산비의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의 발생이 시장에 적용됨과 동시에 육계에 있어서의 종계입식수의 저하 및 산란계에 있어서의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08년초 HPAI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양계산업을 유지해온 많은 양계인들에게 있어서 2009년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지 자료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 본 론

### 1. 육계

#### 1) 육용종계 입식 현황 및 관련 산업

2008년 10월말 육용종계의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4,853천수로 전년도 대비 6.9%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AI발생이후 6월~8월의 입식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2009년 1분기까지의 생산 잠재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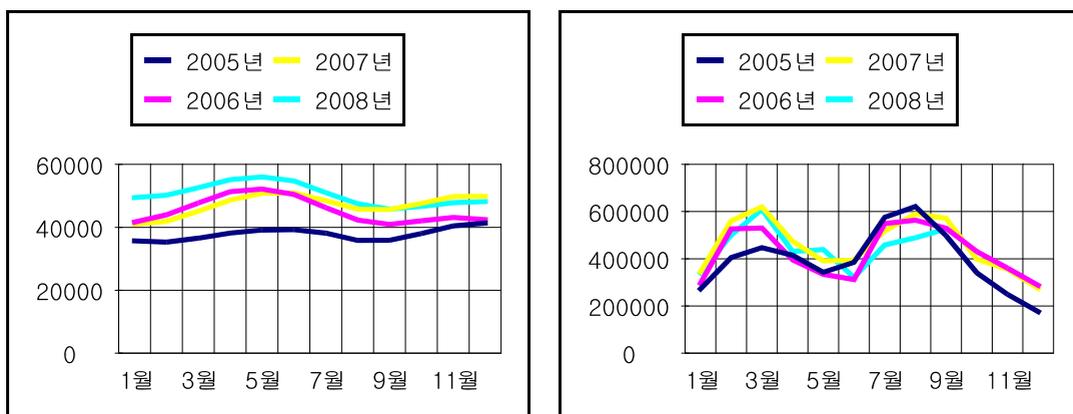
2008년 대비 7.14% 감소될 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그림 1>

2008년의 육용종계사료 배합실적은 2007년도 대비 11% 감소되었으며, 2008년 3월~6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앞선 입식현황 및 생산 잠재력과도 연관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육계사료 생산량도 동기간(2009년 1분기)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변화할 것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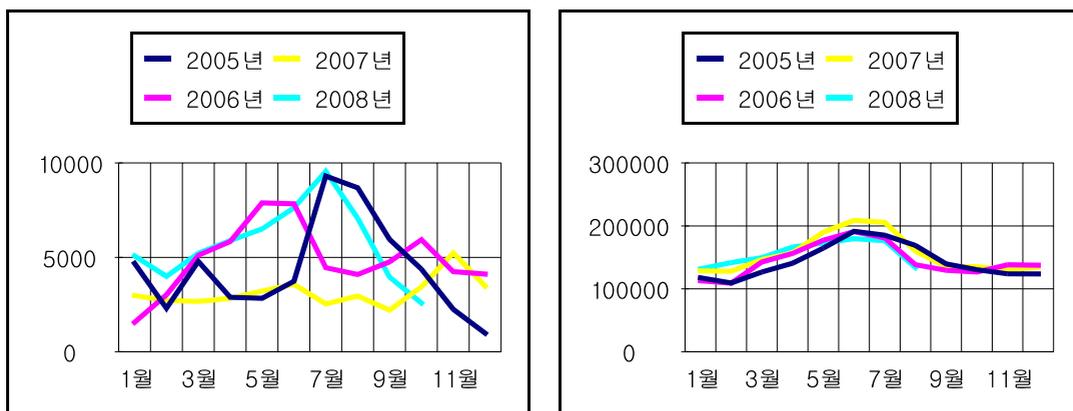
## 2) 닭고기수급 현황

2008년 11월 기준 민간 비축량은 538만수로 전년 보다 44%나 감소하였으며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 수매 비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주문이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 12월부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시행이 실시되면서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가 더 증가 할 것을 보인다. 2009년 초에는 계절적 원인으로 인한 육계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그림 1> 육용종계입식현황 및 육용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그림 2> 육계사료생산실적 및 도축물량,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나, 다만 2008년 닭고기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2007년 대비 82% 증가한 5,747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9년에도 수입물량에 따른 국내 육계시세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통계자료를 통한 단기적인 예측을 실시한 것이며 실제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계육의 생산과 함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 및 계열업체에서의 철저한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와 함께 항생제 비급여에 따른 생산성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양질의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관련사업인 배합사료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2.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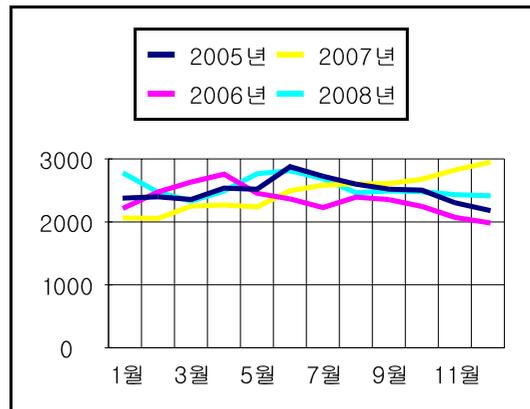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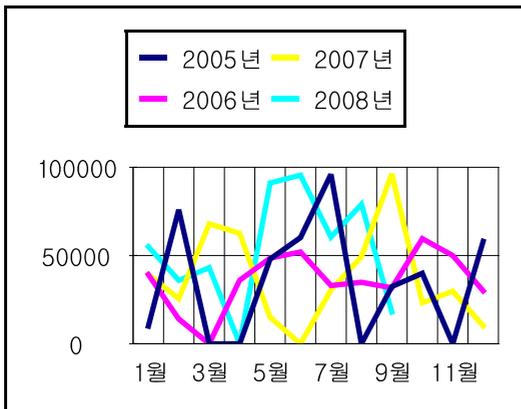
### 1) 산란중계 입식 현황 및 관련사업

2008년 10월말 산란중계의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517,128수로 전년도 대비 26.2%가 증가하였다. 금년 4/4분기 산란실용계 생산에 영향을 미칠 1/4분기 입식 산란중계는 134,028수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2009년 1/4분기에 영향을 미칠 2/4분기 입식 산란중계는 186,600수로 전년 동기 대비 240.8% 증가하였으며<그림 3>, 2008년 10월말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는 29,987천수로 9월말 이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7년 말부터 입식된 산란중계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영향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008년 초부터 다시 산란중계의 입식이 증가됨에 따라 2009년 초부터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 2) 계란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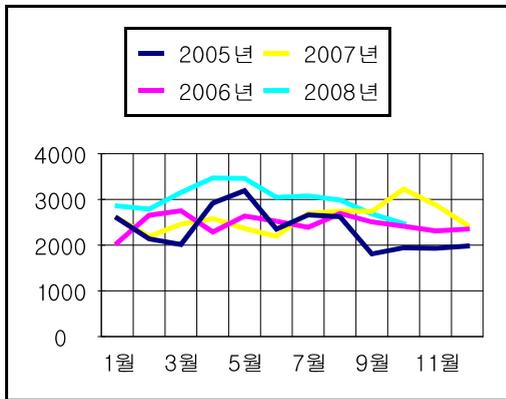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김장철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던 계란수급의 현황과 달리 소비동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언론홍보 및 경기침체로 인한 대체식품으로의 구매력 상승의 영향으로

<그림 3> 산란중계입식현황 및 산란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2008년 10월 이후 산란노계 도태수수의 감소는 2009년 계란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계란 수급은 생산과 소비 양측면을 볼 때 안정적인 생산의 기반 하에 소비의 위축 또는 활성화에 따라 결정되어질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산란실용계 판매수수, 대한양계협회



### 3. 원료가격 및 환율

2008년 11월 기준으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아 올라 있는 상태로 사료 원료(곡물)의 상승과 함께 양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중되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연구로 인해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옥수수 사용량이 늘어나고, 바이오 디젤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대두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료용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과 함께 이로 인한 다른 곡물 및 합성원료의 상승이 동반되었다. [그림5]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던 배합사료 원료의 국제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환율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배합사료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은 원료가격의 상승 및 환율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바 있다. 즉, 환율 10원의 상승은 배합사료가격의 kg 당 3원의 상승요인이 된다.

이처럼 2009년의 상황은 내적으로 양계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적요인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국제 옥수수 및 대두박 가격동향, Chicago Board of Trade



## ◆ 결론

2009년의 양계산업은 국내외적인 여건과 앞선 분석자료에서 살펴 본 것처럼 험난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진다. 다만 양계인 스스로가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및 차단방역을 통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한다는 장인정신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계산물을 공급하려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7월부터 농림수산물부에서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인증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전략적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2009년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양계인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